

“카페 운영하며 영상 작가 꿈 이룰터”

4년제 대학 등록금 연 553만원

조선대 700만원 가장 비싸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20곳 연간 등록금이 평균 553만원에 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0만원 가량 저렴하며 가장 비싼 곳은 국내 최초 민립대인 조선대가 7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이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2019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4년제 대학 20곳(전문대·사이버대·원격대학·과학기술원 등 제외)의 연간등록금은 전액 무료인 광주가톨릭대를 제외하고 평균 553만원에 달했다.

1위는 조선대로, 연간등록금이 평균 700만원이다. 전국 193개 대학 중 93위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상 작가와 카페 운영 두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신대(663만원), 호남신학대(659만원), 광주대(653만원), 한려대(653만원), 호남대(652만원), 남부대(650만원), 초당대(649만원), 세한대(648만원), 목포가톨릭대(646만원), 송원대(642만원), 광주여대(627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공립대는 대부분 400만원대 이하다. 전남대가 414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순천대(394만원), 목포대(389만원), 광주교대(347만원), 목포해양대(340만원) 등 나머지 국립대는 모두 300만원대다.

원불교계 사립대인 영산신학대는 한해 등록금이 200만원으로, 가톨릭교구에서 사제양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광주가톨릭대를 빼면 가장 낮은 등록금이다.

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조기철 기자



“카페 운영하며 영상 작가 꿈 이룰터”

그는 이어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에 매진 하다 보면 언젠가 꿈이 내 눈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상 작가와 카페 운영 두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찬 기자

상권 분석 후 창업...고객 맞춤 공간 심혈한 사람을 위한 인물 위주 작품 목표 매진

절부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일을 배웠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창업자금을 모은 그는 조선대 인근 원룸가에 ‘사월의 파랑’이라는 카페를 개업 하기에 이르렀다.

김 사장은 카페 운영 모토를 ‘깨끗함’이라고 정하고, 카페 위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손님들 대부분이 대학생들을 고려해 다른 카페보다 탁자의 높이를 높이고, 카페 밝기를 낮춰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지금은 카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의 꿈은 ‘영상 작가’다.

고등학교 시절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를 본 뒤 ‘영상을 찍는 작

가’가 꿈이 됐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영상 편집을 해오고 있다.

김 사장이 카페를 창업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영상 편집을 위한 공간과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영상 작가의 수입만으로는 제대로 꿈을 이룰 수 없겠다는 생각에 카페 운영을 생각하고, 1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인물 위주의 영상 작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김 사장은 “한 사람을 아름답게”라는 모토로 자각적이지 않으면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찍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지금은 카페 운영에 매진하느라 제대로 영상 편집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월의 파랑’ 카페 김대훈 사장

“오래전부터 영상 작업을 위한 공간을 고민하다 카페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카페를 운영하면서 영상 작가가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작가를 꿈꾸는 김대훈 사장(31)은 지난해 11월 조선대 인근에 ‘사월의 파랑’ 카페를 창업하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사장은 카페 창업에 대해 대학생 시

‘성폭행 치사’ 10대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8)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장기 8년·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치사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가중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2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와 사망 전후 상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치 않다”며 “피해자는 이들에 의해 과도한 음주로 쓰러졌고, 추후 사망을 예견 할 수 있었던 점을 미뤄 볼 때 방치 뒤 도주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군 등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 6개월, 장기 4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영광의 한 모텔에서 C양(16·여)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광민 기자



대한민국 우주 사진전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 사진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달 착륙 5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나로호와 아리랑 위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결정적인 장면과 아름답고 경이로운 위성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3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민국 우주 사진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달 착륙 50주년 기념 특별전’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나로호와 아리랑 위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결정적인 장면과 아름답고 경이로운 위성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광주국과수 연구원 인력부족

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호 의원(서울·서대문구을)이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에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적정인원은 35명이지만 지난해 18일 기준 32명으로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452명의 연구인력이 필요하지만 409명만 있어 4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국과수가 처리한 감정처리 건수는 2015년 36만8918건, 2016년 47만6560건, 2017년 57만2765건, 지난해 52만63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 전기화재로 지난해 120억원 재산피해

광주·전남시 지난해 전기화재가 발생해 12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재 통계 분석자료’ 결과, 광주는 185건·전남 478건 등 모두 663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했다.

광주는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9억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전남은 7명이 부상을 입고, 110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백 의원은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기자

전남 유·초등 교사 임용 경쟁률 2.9대 1

전남지역 유치원·초등 교사 임용 시험 경쟁률이 2.9대 1을 기록했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임용 시험 응시 원서 접수를 최근 마감한 결과 334명 선발에 99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지난해(2.2대 1)보다 높아졌지만, 광주지역(8.1대 1)에는 못 미쳤다.

유치원 교사 63명 선발에 531명이 지원해 경쟁률(8.4대 1)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 교사는 173명 선발에 263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는 6명 선발에 26명, 특수학교 초등 교사는 29명 선발에 139명이 지원했다. 장애, 지역 단위 전형에서는 73명 선발에 37명만 지원했다.

/조기철 기자

“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



도리깨

○... 대리 요금을 턱없이 부른다며 대리사를 폭행한 40

대가 경찰서행.

○...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3)는 2일 광주 북구 일곡동 노상에서 대리요금문제로 시비가 붙으면서

대리운전기사B씨(30)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

○...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밤 늦게 까지 일하는 B씨가 안스럽지도 않냐”면서 “요금을 많이 부른다고 생각 하면 좋게 대화로 풀어야 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이나라 기자

동부 센트레빌,상가 사정상 급매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 덕남동 임야, 992m²,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